



서북권

●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24.4% 상승. 전 권역 중 가장 양호.

- 전년동월대비 +24.4% = 소매업의 기여도 +4.8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19.6%p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※관련설명은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●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7.3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57.1% 상승

- 서북권 소매업은 음식료품(6월 -4.8% ⇨ 7월 -6.3%) 등이 하락폭이 확대하고 연료(-23.7%), 기타 가정용품(-1.5%), 종합소매(-1.3%) 등 일부 세부 업종이 하락세를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의복·섬유·신발(38.6%), 기타상품(15.4%), 무점포소매(6.6%), 가전제품·정보통신(5.0%) 등의 업종이 오름세를 이어가며 소매업 오름폭은 (전월보다) 증가.
 - 7월 서북권 소매업은 의복·섬유·신발, 기타상품, 무점포소매, 문화·오락·여가, 가전제품·정보통신 등의 순으로 소비 증가
 - 반면 연료, 음식료품, 기타가정용품, 종합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-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(92.7%)과 숙박(50.2%), 음식점(45.4%) 등의 모든 세부 업종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(전월보다) 오름폭이 크게 증가
 - 7월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도 주점·커피전문점, 숙박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.

Ⅰ 서북권 소비경기지수



Ⅱ 서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Ⅲ 서북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